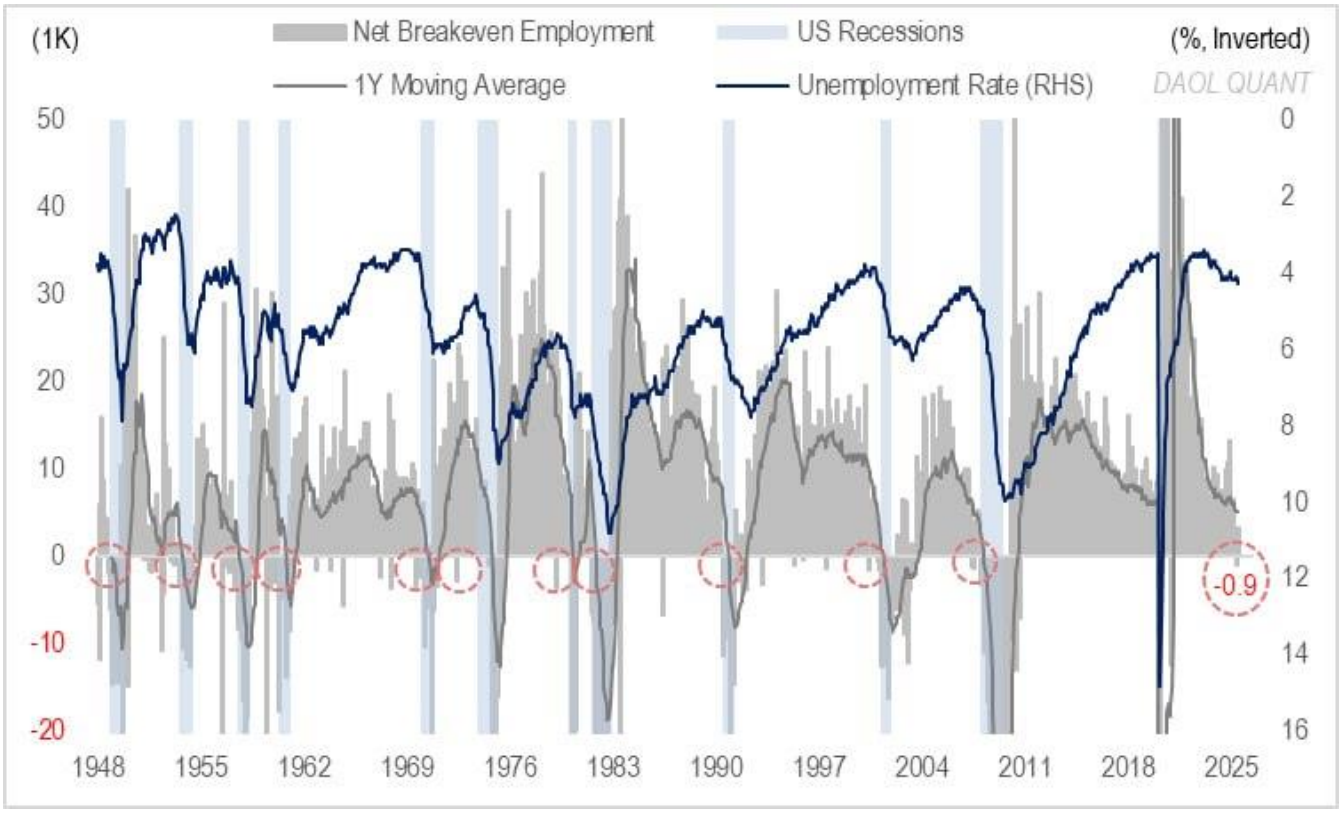
GENIE IN DAOL

"나는 너의 지니, 금융문제 해결사~!"

DAOL 다올투자증권
Quant Analyst 김 경 훈 CFA, CAIA, FRM
Tel: 02)2184-2330 // E-mail: aimhigh2027@daolfn.com

Publication Date: 2025-9-16

4th WISH – "미국 고용, 이대로 괜찮은가?!"



Source: BLS, DAOL투자증권

- 상단 차트는 각 경기사이클 마다 추세를 갖고 움직이는 실업률과 이러한 실업률 향방을 선행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Net Breakeven Employment(NBE)에 대한 장기 시계열 추이
- NBE는 미래 실업률 향방의 척도로서 매 경제 환경 마다 실업률이 변화 없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 고용의 증분을 의미. 예컨대, 통화정책의 "중립금리"와 같은 개념으로 이를 고용 시장에서의 "중립고용"과 같은 의미로 해석 가능
- 작년 하반기부터 4%대에 진입한 실업률은 현재 1년 넘게 큰 변화 없이 4% 초반에 머무는 중. 이는 그간 미국 경기가 실제로 탄탄했다는 것을 의미했지만, 이제는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더 높아진 상황
- 그간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 즉, NBE에 부합하는 고용의 증분이 있었다면, 지금은 그 완충지대가 크게 사라졌기 때문 (i.e. 1년 전 10k 대 NBE에서 현 1K 대로 약 -90% 감소)
- 따라서 최근 실업률에 뚜렷한 변화가 없다고 이를 안일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, 슬로우해진 경제가 동시에 중립고용 감소로 이어져 온 만큼 향후 실업률 상승에 본격 기여할 것으로 판단
- 최근처럼 NBE가 마이너스로 전환됐던건 코로나 이후 5년만, 이런 외생변수 제외시 리만사태 직전이었던 18년만에 처음. 실업률이 상승할 때 NBE의 마이너스 전환은 과거 경험상 "해고의 물결" 초입

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.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,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,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,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, 복제, 인용, 변형할 수 없습니다.

DAOL 다올투자증권